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도, 〈주〉도 알아줘야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가 더 일어나게 하신다. 〈사람들〉도 이와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
2. 〈진리〉를 가르쳐 주었으니, 알아서 대하고 알아서 행하여라.
3.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아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함으로 자기 길을 가니,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다. 고로 〈죽음의 역사, 사망권의 역사〉로 가 버렸다.
4. 〈하나님의 생명길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지는 하나님이 행해 주시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추상적으로도 알 수가 없고, 그냥 감각적으로도 알 수가 없고, 점을 쳐도 알 수가 없고, 세상 어떤 학자라도 알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고 상상도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 깨우쳐 주신다.
5. 〈집에 어항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은 ‘연못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을 보면 깜짝 놀란다. 그보다 더 큰 세계를 보면, 국가에서는 한 지역을 개발해서 수백, 수천, 수십만 사람들을 살게 해 주는 일을 하니 이를 보고 놀라고 상상도 못 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명 급’에 따라 하는 일들이 다르니, 상상도 못 한다는 것이다.

6. 선생이 하는 일도 보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생각한 일을 하는 것이 거의 없다. 생각 밖의 일이다.” 한다.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면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7. 선생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행하시는 일들을 봤어도, 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마다 놀란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고, 이것저것 따져 봤을 때 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행하시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면 손가락만큼 행했어도 몸체만큼 행해 주시며 역사해 가신다. - 이는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 중의 하나다.
8. <구시대 사람들>은 ‘구시대’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다. 그 희망은 이뤄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뤄 주시지 않는 희망이다.
9. <시대>가 뒤바뀌었는데도 ‘종교’는 뒤바뀔 줄 모른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안다. 자녀는 부인이 될 수도 없고, 남편이 될 수도 없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도시가 뒤바뀌고 시골길이 뒤바뀌듯 <시대>가 뒤바뀌었으면, 그 시대에 맞게 ‘행하는 것’도 뒤바뀌어야 한다.
10. <상상도 못 하는 일>을 해도 사실상은 잘 모른다. 가령 빌딩을 지을 때도 보면 “빌딩을 지었네?” 하고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상도 못 하는 돈이 들어가고, 상상도 못 하는 철근이 들어간다.<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과 비교해 봐야 된다. <사람이 하는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11.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도 스틸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스틸을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된다.
12. 그냥 보면 모르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라.
13. 막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불능하시다. 못 하는 것이 없으시다.” 하고 알아도 안 된다. <실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
14.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일생 동안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못 한다.
15. 하나님은 <알아주는 자,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
16.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사람의 뇌, 생각’에 주셨다. 이것을 안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몰라주기 때문이다.
17.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며 늘 감탄했다. 하나님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늘 만들 때마다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로 다 다르게 만드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상’이 많다는 것이다. 지구 세상 75억 명의 사람들만 봐도 다 각각이니, 그만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다.

18. <월명동을 만든 것>도 보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자세히 보면 다 ‘다른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 스틸이 넘치고, 머리에 전기 만 볼트가 오듯이 찌릿하고, 정말로 멋지다.
19. <하나님의 구상>을 보면, 무엇을 만드시는 것인지 잘 모른다. <야심작>도 만들어 놓고도 18년 동안 무엇을 만들었는지 몰랐다. 하나의 자존심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파고들어서 결국 끝장을 봤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백보좌’이다. <하늘의 백보좌>를 상징해서 이를 땅에 실현시킨 것이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늘의 보좌>를 땅에 주리라.” 하셨다. 이를 확대시키면 택한 민족으로서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리고 축소시키면 <하나님의 성전들>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이 된다.
20.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나서 움직여도 잘 안 보인다. 고로 사람들은 잘 모른다. 작은 것을 갖다 놓으면 표가 나는데, 하나님은 ‘집 자체’를 갖다 옮겨 놓기 때문이다. 그러니 <작은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된다.
2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월명동의 돌 하나도 그냥 온 일이 있느냐? 먼저 찾고, 그다음에 사 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쌓아야 되듯이, 나 여호와도 이같이 하나씩 만물을 통해 천지를 창조했

노라.” 하셨다.

22. <주>를 알아주지 않으면, <주>가 알아주지를 않으신다.

23. <주>를 알아줘야, <주>도 그를 알아준다.

24. <주>는 ‘구원’ 이시다. <구원>이 먼저다. 그러려면 먼저 <주>를 알고, 믿고, 따라야 한다.

25. <알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준다는 것’도 있지만, ‘그와 관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26. 몰라주고 말하면, 말씀하지를 않는다. 몰라주고 말하면, ‘말씀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27. 몰라주면, 입을 열지 않는다.

28.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알아주지 않는 자’나 ‘악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손해가 가기 때문이다.

29. <심정>을 모르고 말하면, 하늘도 땅도 ‘말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

30. 배워야 알아주고, 배웠어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알아주다 만다.

31. 인사성으로 순간만 알아주면 안 된다.
32. 알아주면, 물건도 안 사려다 사 가게 돼서 거액을 벌기도 한다.
33. <물건>도 ‘그 값’을 알아줘야 사 온다.
34. 하나님도 알아줘서 ‘우리의 하나님, 신랑’이 된 것이다. <성령님>도 그러하다. 그런데 기성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한다. 이는 자기 엄마를 “아버지의 생각 중 하나다.” 하는 격이다.
35.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알아주고 믿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아줘야 ‘사랑의 신부’가 된다. 몰라주면, “네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을 다 받는다. 네 때는 이미 지나갔노라. 깨달아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신다.
36. <기성>은 ‘때’가 지나갔다. 그러나 미련이 없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와서 새 시대에서 역사를 펴고 끝났기 때문이다. 다 이루고, 지금은 마치 결혼해서 같이 사는 기간과 같다.
37.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38. <근심이 많은 자>는 근심으로 ‘주’를 보고, <걱정이 많은 자>는 걱정으로 ‘주’를 본다.

39.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야 그 능력이 나간다.

40. <시간의 가치>를 알아줘야 ‘시간’도 아껴 쓰고 귀히 쓴다.

◎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